

# 배우 박해수 “미국 시상식 낫설었지만 정말 행복했죠”

‘오징어 게임’ 박해수 새 영화 ‘인터뷰’  
“K콘텐츠 이제 시작...발전 돕고 싶다”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예전엔 연극 한다고 걱정하셨는데,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니깐요.”  
배우 박해수(41)에게 최근 생긴 별명은 ‘넷플릭스 공무원’이다. 넷플릭스 영화·드라마에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의미다. 영화 ‘사냥의 시간’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왔고, 최근 공개된 ‘아차’ 그리고 앞으로 공개 예정인 드라마 ‘종이의 집:공동경제구역’에도 나온다. 박해수는 “어쩌다 보니 그런 별명까지 붙게 됐다”며 “이젠 넷플릭스 분들과도 많이 친해졌다”고 말하며 웃었다.  
지난 15일 박해수를 온라인 화상 인터뷰로 만났다. 최근 그가 설경구와 함께 투톱 주연을 맡은 영화 ‘아차’가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성사된 인터뷰였다. 다만 그에게 ‘아차’와 관련한 질문만큼 ‘오징어 게임’과 이른바 ‘K콘텐츠’에 관한 물음이 쏟아졌다. 최근 ‘아차’는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순위에서 3위까지 올랐다. ‘아차’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징어 게임’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전혀 관련 없는 얘기들은 아니었다.  
지난해 박해수는 이정재·정호연 등과 함께 글로벌 스타가 됐다. 그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각종 TV 드라마 관련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이정재와 정호연이 그리

고 ‘오징어 게임’이 온갖 최초 기록을 세우며 상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연기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을 뿐이지 박해수의 연기력에 대한 호평은 이정재나 정호연, 오영수 못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서의 시간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시상식에서) 이정재 선배님의 이름이 불리고, 정호연씨의 이름이 불리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상식이 아직은 제게 낫설더라고요. 편하지 않고 어색했어요. 제가 글로벌 스타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박해수는 자신이 글로벌 스타는 아니라고 했지만 책임감은 느낀다고 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른바 한국 영화·드라마를 향한 관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박해수는 그렇다고 해서 작품 선택 기준이 글로벌 무대에서 얼마나 통할 수 있느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꼭 글로벌 프로젝트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미 우리가 가진 이야기로도 충분히 세계 시청자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부심

이 있다”고 말했다.  
“예전엔 어떤 영화가 있으면 아시아인이 필요할 때 한국 배우가 들어가서 연기하는 식이었잖아요. 이젠 한국 콘텐츠 자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절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제가 ‘오징어 게임’에서 엄청 악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웃음)  
박해수는 2017년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주인공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벌어진 일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대로다. 박해수는 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다. 그는 지난해를 축복받은 해, 행복한 한 해로 표현했다. 그에게 작년은 ‘오징어 게임’만 있었던 건 아니다. 아이가 생기기도 했다. 박해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신나는 1년이었다”고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작품의 좋은 조각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조각으로서 계속 힘을 보태다보면 정말 글로벌 스타가 나오지 않을까요.”  
박해수는 ‘오징어 게임’에서 합을 맞춘 이정재, ‘아차’에서 함께 호흡한 설경구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이 보여준 후배를 끌어안는 포용력을 배우고 싶다는 얘기였다. “두 분 뵈기 전에 정말 긴장 많이 했어요. 부담감이 엄청 났죠. 손에 땀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편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선배님들 정도 나이가 들면 선배님들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박정민·김슬기...‘별뿔별’ 카메오 출연

tvN 새 금토드라마, 오는 22일 방송 예정



배우 박정민·윤병희·서이숙·김슬기가 tvN 새 금토드라마 ‘별뿔별’ 속 카메오로 출연한다. 22일 오후 10시 40분에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금토드라마 ‘별뿔별’(극본 최연수·연출 이수현)은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들의 뒤에서 그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리얼한 현장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MBC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 tvN 드라마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등을 연출한 이수현 PD

가 메가폰을 잡고, 실제 매니저먼트사에서 오랜 근무 이력을 지닌 최연수 작가가 대부분을 집필해 업계의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로코 탄생 을 예고하고 있다.  
또 연예계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매화 걸출한 배우들의 깜짝 출연이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별뿔별’은 18일 카메오 퍼레이드의 첫 주자로 나선 박정민·윤병희·서이숙·김슬기의 현장 스틸을 공개해 기대감을 더했다.  
먼저 영화 ‘동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 폭넓은 장르에서 캐릭터 변신을 꾀하며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잡은 박정민이 ‘별뿔별’ 첫 방송에서 펼칠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베테랑 연기와 배우 서이숙의 출연 역시 눈길을 끈다.  
또 김슬기는 대외 이미지와 실제 성격 사이에 엄청난 간극을 지닌, 생계형 연예인 ‘해피 역으로 출연한다.’  
한편, ‘별뿔별’ 제작진은 “박정민·윤병희·서이숙·김슬기 배우 등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흔쾌히 출연을 결정해준 배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채로운 카메로 분들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브로커’ 송강호가 출발점”

‘브로커’ 올해 칸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영화 ‘브로커’로 올해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번 영화를 배우 송강호를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했다.  
고레에다 감독은 19일 이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집’을 통해 제작 후기를 전하며 “송강호

배우가 ‘브로커’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나리오 구성 단계에서부터 송강호 배우를 떠올렸고, 현장에서 굉장한 자극제가 되어 줄 만큼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송강호는 이 영화에서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기를 키울 적인자를 찾아주려는 자칭 선의의 브로커 ‘상현’을 연기했다.  
상현은 아기의 새 부모를 찾기 위해 특별한 거래를 계획하고, 예기치 못하게 거래가 발발되면서 발생한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인물이다. 영화사 집은 송강호의 연기를 “브로커라기에는 어딘가 허술하면서도 소탈한 인간미가 살아있는 상현을 흡인력 강한 연기로 완성해 극에 깊이감을 더했다”고 평했다. 이번 작품엔 송강호 외에 강동원·배우나·아이유 등이 출연했다.  
연출을 맡은 고레에다 감독은 일본을 대표하는 거장이다. 2018년 ‘어느 가족’으로 칸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그는 2013년에도 같은 영화제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브로커’는 오는 6월 개봉 예정이다. 한편 제 75회 칸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17일 열린다.

## 정동원, 두번째 동화 전국투어...6월 광주 공연

가수 정동원이 단독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티켓 예매를 오픈한다.  
가수 정동원이 내달 7~8일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21~22일 광주, 6월 4~5일 서울, 6월 18~19일 대구 4대 도시에서 ‘2nd 정동원棟동 이야기話 콘서트(2nd JEONG DONG WON'S TALK & CONCERT)’를 개최한다.  
서울 콘서트 티켓은 21일 오후 6시 팬카페 선예매와 22일 오후 6시 일반예매를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할 수 있다.  
또 부산과 광주 콘서트도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다.  
‘2nd 정동원棟동 이야기話 전국투어 콘서트’는 5개월만에 돌아오는 정동원의 4월 발매 예정인 신곡 무대부터 트로트,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동원의 새 미니앨범 ‘손편지’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 오겜에 이어 파친코까지...K-드라마 흥쳐보는 中

“핀볼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불법 유통 확산”

오징어게임, 지옥 등에 이어 ‘파친코’까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드라마가 중국에서 공짜로 유통되고 있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 TV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가 최근 중국 내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핀볼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되고 있다.  
파친코는 1910년대부터 1980년대를 배경으로 재일조선인 가정의 4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교포와 아직도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의 삶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 애플이 최근 뛰어난 OTT 시장을 겨냥해 만든 오리지널 작품으로 지난달 25일 공개한 후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7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시즌 1(8부작)에 제작비가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애플TV가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이지만 중국인들이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파친코를 불법 시청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지옥’ 등 K-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인 흥행몰이를 할 때도 많은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버전을 시청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넷플릭스는 190여개국에서 서비스하지만 중국, 북한, 시리아 등에서는 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하지 않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글로벌 OTT의 오리지널 작품 외에도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 해적판 유통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특히 중국은 2016년 한국에 고고도미사 일방위체계인 사드(THAAD)가 배치되자 한 한형(한류 금지령)을 시행, 한국 콘텐츠의 정상적인 유통을 막았고, 그에 따라 더욱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K-드라마가 소비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중국에서는 한국 외 다른 나라의 콘텐츠도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의 작품은 저작권이 국내 제작사에 있지 않고 글로벌 OTT에 있어 정부가 나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